

1. 유학준비

서류준비: 일본어로 된 입학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 입국서류, 입학서류는 아무리 봐도 그 무엇을 적어야 할지 도통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을 시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 한국주소는 물론 우편번호, 학교주소, 학교전화번호, 홈스테이의 경우 홈스테이처의 전화번호와 주소, 우편번호 정도는 적어 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 가서도 주소나 전화번호, 우편번호 적을 일이 아주 많습니다.(정기권,통장, 보험 등)

홈스테이, 아파트: 오사카가쿠인대학의 경우 73명의 유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신청을 해도 아파트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이 좋아 홈스테이로 결정되었다면 일본 쪽 홈스테이처에 메일로 먼저 인사를 해 두세요. 홈스테이의 경우 함께 사는 것이므로 관계를 처음부터 잘 해 두는 게 좋습니다. 학교 측에서 그 쪽 집의 정보를 받겠지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바로 바로 물어 출국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돼지코! 220볼트에서 110볼트로 바꿔줍니다. 싸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니깐 반드시 챙기시길. 여름옷만 챙겨가도 되고요. 겨울 옷은 나중에 택배로 받는 게 좋습니다. 여자의 경우 스타킹이나 화장품을 가져가세요. 스타킹 비싸요. 그리고 상비약도 챙기세요.

2. 유학생할

1) 여름엔 덥고, 겨울엔 집이 추워요.

제가 유학했던 작년 9월엔 잔서라고 해서 아주 더운 날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는 문화는 없습니다. 절약이 몸에 베었죠. 손수건과 양산은 필수품목입니다. 올해도 작년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여름 타시는 분들은 각오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오사카 덥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견딜만한 추위입니다. 저는 정말 춥다고 했던 날도 견딜 만

했습니다. 하지만 잘 때는 추워서 잠이 안 옵니다. 일본은 더운 여름에 맞게 지어진 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겨울엔 정말 춥습니다. 밖보다 집 안이 더 추울 지경이니까요. 전기장판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집에서 입을 옷을 따로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구입해 입는 게 좋습니다. 일본엔 따뜻하고 예쁜 잠옷이 많아요. 전 잘 때 양말까지 챙겨 신고 잤습니다.

2)홈스테이 생활

홈스테이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고 집에 갈 예정이라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반드시 연락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 여행을 했다면 돌아올 때 오미아게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저는 이게 최소한의 호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따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으니 너무 비싼 물건 말고 그 지역 토산품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교 생활

학교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11시 10분까지 각 레벨에 따른 일본어 수업과 오후의 우리나라 대학수업 같은 선택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 만큼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었는데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며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영어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각국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며 견문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수업엔 가능한 빠지지 마세요. 유학생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한다면 유학생들의 리듬이 깨지고 자신의 유학의 목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시간 약속 지키기

일본사람은 시간에 매우 민감합니다. 시간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지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등하교 길에 한큐전철을 탔는데요. 전철이 연착되는 경우를 9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터지는 인신사고(일본엔 전철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를 제외하면 말이죠. 시간을 잘 지킨다면 일본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학교 행사 참여

오사카가쿠인대학은 유학생을 위한 여러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 행사는 가능한 참여하세요.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인맥도 얻고 새로운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학까지 가서 방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집을 나와서 활동하세요!

6) 새로운 기회잡기

저는 이번 유학을 통해 인턴십을 경험했습니다. 학교 수업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후지제록스 오사카(富士ゼロックス大阪)라는 복사기, 사무관련 회사였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저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회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런 기회를 잡았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잡으세요. 일본에서 취업할 생각이 있다면 더더욱.

7) 정신을 차리자

낯선 나라에 가면 자기자신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저는 처음 도일해서 학교직원을 실수로 리무진 버스를 잘 못 타 홈스테이 집을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다. 일본어가 부족하더라고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귀국준비

짐: 저는 짐을 두 개 부쳤는데 거의 13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본 우체국택배 비쌉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짐을 싸세요. 버릴 것은 버리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짐을 택배로 부치고 몸을 가볍게 해서 비행기에 오르세요. 저는 돌아올 때 짐 끄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정리할 것: 자기 이름으로 오던 우편물은 해지하거나 유학한 학교 쪽으로 주소를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보험, 핸드폰은 미리 해지해 두세요.

편지쓰기: 함께 유학했던 친구들, 호스트 패밀리, 학교 사람, 선생님 등에게 편지를 쓰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호스트 패밀리엔 편지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귀국일: 귀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공항에서 반납했습니다. 그 전에 기념사진이라도 한 방 찍어 두세요. 귀국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 자신이 오기 전과 같이 깨끗이 해 두고, 시간에 늦지 않게 공항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유학했던 학생 중에 비행기를 놓쳐 제 날짜에 귀국하지 못한 친구도 있었답니다.

4. 필요한 정보

- 1) 핸드폰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해 주는 임대폰은 비추. 정말 안 좋아요. 메일 보내면서 일본어 많이 늘었어요.
- 2) 정기권은 반드시! 통학거리가 멀수록 정기권은 구세주입니다. 반드시 정기권을 구입하세요. 30% 이상 싸지는 것 같아요.

3) 한 달 용돈은 최소 20만원 정도.

저는 장학금 수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충당했습니다. 생활해 보니 최소 2만엔 정도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4)금전감각은 필수.

엔화 100엔은 한화로 1400원정도 입니다.

10000원은 700엔 정도. 일본에 가면 거의 밥값이 600,700엔 단위로 떨어지는데 한화 600원, 700원처럼 느껴질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지지만 항상 물건을 살 때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인지 생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과소비로 이어집니다.

5) 아르바이트

저는 한국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아르바이트는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어 공부도 되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하는 것은 비추.